

## 어떤 일이든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 훈 필\*

나이 육십이 다 되어가니 평생을 함께 해 온 경찰도 이제 하직할 때가 되었나 보다. 남 못지 않게 맡은 직책에 충실하려고 노력 해온 33년의 세월이 허전하다 느껴지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나는 ○○경찰서장직을 마치는 이임식 석상에서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다.

“... 저에게는 오늘 이 자리 이임식이 100여명이 넘는 경찰관이 모인 자리로서는 마지막 대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7월 2일 이곳에 부임해 와서 1년 동안 큰 과오없이 근무하다가 정부 발령에 의하여 치안연구소로 떠나게 된 것은 전부 전직원의 합심노력의 대가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 ”

마지막으로 동료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경찰조직면에서, 500미터에서부터 1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무리를 지어 바다속을 누비며 지나는 길을 잡초 한점없이 쓸어버리는 새조개떼와 같이 무한한 경찰의 면모를 과시하고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서로 혈투고 할퀴는 시비일랑 멀리하고 감싸주고 화합을 돈독히 하는 길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각박하고 국경없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경찰이 민주화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 ”

작년 여름 미국연수를 갔을 때 보았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일깨워주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을

\* 치안연구소(총경)

구경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겪은 일이다.

폴스시의 한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들렀었는데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줄을 주욱 서있었지만, 시간도 있고 하여 나도 맨 마지막에 가서 줄을 섰다.

미국에 자주 가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미국사람들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게앞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일은 보통이다.

줄을 서있는데 어떤 백인 한명이 앞으로 오더니 나보다 5번째 앞에 있는 한 백인 앞에 아무 양해도 없이 서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새치기 당한 백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보고만 있고 아무런 제지도 없기에, 나는 이광경을 보고 기초질서 지키기가 세계의 으뜸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사회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쯤 지나 새치기 한 사람의 차례가 되어 그 사람이 물건을 사려하자 바로 뒤에선 사람이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에게 앞사람은 새치기 한 사람이며 아무 양해도 없이 앞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가게 주인은 새치기한 사람인 당신한테는 물건을 팔 수 없다면서 옆으로 나오라고 하니깐 1시간을 기다렸던 백인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건을 사지도 못한 채 나

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야! 대단한 나라구나. 이러한 시민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세계 각국의 인종이 모여 살면서도 세계 최대 강국이란 소리를 듣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다. 어느 누가 그러한 수모와 불편함을 당하고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하려 하겠는가!

얼마 전 우리는 사천칠백만 국민이 단결된 모습으로 질서 있는 응원 열기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였고, 성공적인 질서월드컵을 치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한 순간일 뿐, 또 다시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와 개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불법적인 다중 집회 및 시위가 계속 늘어나 국민의 짜증을 유발시키고, 사회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집회시위에 휩쓸려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허점을 보이는 줄 변연히 알면서도 엄청난 공권력의 소모를 그 쪽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막아, 뚫리면 안 돼. 다치더라도 경찰이 다쳐야 돼. 변수가 생기면 모든 결과 책임은 경찰로 돌아오니까 인내로서 감당해야 돼” 하면서 우리 경찰은 변수없는 진압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야이 경찰새끼들아, 너희들 봉급받고 사는 것이 내가 낸 세금으로 사는거야”

술취한 사람이 심야에 대로에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떠들다가 파출소에 들어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하는 말이다. 이를 보다 못한 경찰관이 “아저씨, 그만 떠들고 집에 가세요. 집에서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걱정하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나요. 힘드시면 저쪽 의자에 앉아 좀 쉬었다가 술 깨 가지고 가시던지 하세요.” 라고 달래 보지만 막무가내다. 이게 일선 파출소의 현장이다.

하도 달래다 못한 성급한 경찰관이 “야이! 나쁜 사람아! 밤잠 못자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면서 범죄예방하라. 범인검거하라 다니는 것이 당신 같은 사람 보호하려고 존재하는 것인 줄 아느냐”고 큰소리 치다가는 대

민 불친절로 징계 먹기 일쑤다. 이게 경찰관의 현주소이다.

경찰의 임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면 어느 곳이나 생명을 무릅쓰고 쫓아가야 한다. 항상 위기 관리능력을 함양하고 대형 사건사고를 슬기롭게 처리해야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오늘도 경찰에게는 일반공무원의 책무 외에 수인의 의무(참고 견뎌 내야 할 의무)가 부가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민생치안 유지에 정진하여야 한다고 하늘을 우러러 다짐해 본다.

경찰이라는 이름 앞에는 무슨 일이든 예고없이, 대중없이 찾아 든다는 것을 명심하면서.